

# 여수시청 정일우 육상 포환던지기 9연패 금자탑



### 한국 신기록 보유자...슬럼프 딛고 남자 일반부 18.41m 금 "10연패 달성후 아름다운 은퇴...후진 양성에 힘 쓰고 싶어요"

"포환 괴물"이 쓰아 올린 커다란 쇠공  
스포츠 간판스타의 '아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 남자 포환던지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 정일우(37·여수시청)가 제104회 전국체전 포환던지기 남성 일반부에서 비거리 18.41m를 기록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정일우는 '전국체전 9연패'라는 기업을 토하며 또 한 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냈다.  
정일우는 한국체대를 졸업한 뒤 경기도, 여주시청 등에 소속해 포환던지기 대표로 활약해 왔다. 이번 기록은 그가 경기도에서 여주시청으로 이적해 새 동지를 둔 지 3년 만에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에

서 주목받고 있다.  
"여수소 소속을 바꾼 첫해에는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어요. 아무리 힘써도 포환이 17m 정도에서 고꾸라지는 등 절망도 겪었죠. '한국 최초로 포환 19m를 던지는 선수'라는 금자탑도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일우는 코로나와 부상으로 한동안 포환비거리의 하락세를 겪었다. 여주시청으로 이적했던 해에는 계속 17m대를 기록하다가 후반기에 18.5m, 22년 다시 19m대를 회복했다. 당시 19m대 기록을 회복하지 못하면 '은퇴'까지 고민하던 시점이었으나 다행히 컨디션을 회복했다. 부단한 노력 끝에

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것.  
슬럼프를 극복해 낸 비법을 묻자 정일우는 '배수의 진'이 먹힌 것 같으며 웃어 보였다.  
"여수 김재성 감독님, 목포 김영래 감독님, 전남 심귀철 전무이사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본인들도 은퇴가 머지않은 시점에서 모두 함께 마지막 한 수를 던 셈이죠. 그게 마치 꽃놀이패처럼 좋은 수가 될 줄은 몰랐네요." 어려웠던 시절 고난을 함께했던 감독 등을 사사하는 그의 겸연쩍은 모습에서, 배움의 은덕을 잊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포환던지기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종목이다. 2.135m 서클 안에서 발레리나, 피겨스케이팅처럼 수회 회전한 뒤 수력을 거슬러 목적인 쇠공을 멀리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일우는 필드에서 181cm에 112kg에 달하는

몸무게, 거대한 팔뚝으로 남상다운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포환던지기의 복합적인 면처럼 섬세하고 감성적인 여성적 측면도 보여줘 이채로웠다.  
"10연패를 달성하면 아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일단 경기장 한편에서 관중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싶네요. 이후 가족들과 조촐하게 은퇴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한편 정일우는 이번 전국체전 메달 획득과 9연패라는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뜻이 맞거나 재능이 있는 후배들에게 훈련 방법 등을 활발히 공유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전국체전에서 10연패를 달성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의 노하우를 전수 받은 후진들이 정일우보다 커다란 공을 쓰아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취재반



왼쪽부터 광주체고 조정팀 정민우, 정유관, 서에서, 김정민, 김지선, 김승현. <광주체고 조정팀 제공>

## 광주체고 조정팀 금 8개 중 4개 휩쓸어

### 여자선수 전원 2관왕 쾌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조정 종목에 출전한 광주체육고등학교 여자 선수 전원이 2관왕에 오른다는 기업을 토했다. 남녀고등부에 걸린 8개 금메달 가운데 4개를 휩쓸며 선전을 펼쳤다.  
광주체고 조정팀은 지난 16일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조정 경기에서 남자고등부 더블스컬, 여자고등부 더블스컬, 쿼드러플스컬, 경량급 더블스컬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고등부 더블스컬에 출전한 정민우·정유관(2학년)은 7분07초8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여자고등부에서는 선수 전원이 2관왕을 차지했다. 더블스컬에 출전한 김승현·김정민은 7분55초53으로, 쿼드러플스컬에서는 김승현·김정민·서에서·김지선이 7분23초34로, 경량급 더블스컬에서는 김지선·서에서가 7분55초1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고 조정팀 여자부 주장을 맡고 있는

김정민은 "전국체전이라는 큰 대회에 경기를 치르니 떨리고 부담감이 있었는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서 기쁘다"며 "함께 뛰 동료들과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축하를 나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더블스컬에서 만 동메달 1개를 땀는데 올해는 올해는 금메달을 2개나 획득하게 됐다"며 "메달 색깔도 달라지고 개수도 많아져서 더 발전하고 성장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내년 대회에서도 1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금메달을 합작한 서에서는 "실수 없는 경기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열심히 준비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분이 좋고, 출가분하다"고 말했다.  
신영금 광주체고 조정팀 감독은 "역풍이 불어서 신기록은 못 세웠지만 우리 선수들이 고등부 조정에서 금메달을 휩쓸어 대견하다"며 "내년 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전국체전 화제의 인물

## "대회 통해 종마와 호흡 맞춰가는 행복감 얻어"

### 전남 최고령 출전 마장마술 조한호씨

승마 종목의 일종인 '마장마술(馬場馬術)'은 60x20m 넓이 마장에서 말과 함께 정해진 연기를 펼치는 경기다. 정적인 흐름 속에 기수와 말의 아름다운 움직임이 깃들여 '정중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다.  
지난 13일 장수승마장에서 펼쳐진 '2023 전국체전' 마장마술 대회장에는 조한호(65·전남승마협

회)와 노마(老馬) 브랜시스(17)가 출전했다. 평소 기량이 좋은 타야(15)와 호흡을 맞춰왔으나, 작년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노익장의 기수와 노마가 함께 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전남 출전 선수 중 최고령인 조한호씨는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으나, 경기를 끝낸 뒤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씨는 "브랜시스는 길들이기 어려운 종마라서 그동안 부담이 됐지만, 대회를 통해 호흡을 맞춰가



는 행복감을 안고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날 조한호는 총 63.750점을 기록했다. 1등은 71.911점을 기록한 남동현(광주시승마협회)의 말 '페어플레이'였다.  
조씨는 "겨울엔 브랜시스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것은 처음 본다"라며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전국체전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아직 부족해...세계신기록 목표 꾸준히 연습"

### 해머던지기 5연패 위업 박서진씨

"연습 때보다 더 잘 나온 기록이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해머를 65m 이상 던지고 싶어요. '세계신기록'을 목표로 삼아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18일 목포종합운동장 트랙에서 만난 박서진(목포시청)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해머던지기

여성 일반부에서 비거리 59.11m를 기록하면서 대회 5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박서진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55.54m를 기록해 11위에 오른 바 있다.  
박서진은 "아프면 다독여 주고 힘들면 위로해 주는 코치님과 가족들 덕분에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며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까지 받았는데 슬럼프를 극복한 것 같아 다행이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해머던지기는 아직까지는 비인기 종목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이번 전국체전 5연패가 작은 기록제가 돼, 시민들께서 그 매력을 많이 알아봐주시고 경기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 도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연애 신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박서진은 "다음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며 각오를 전하는 모습이 결의에 차 보였다. /특별취재반

## "내년에는 한국 신기록 꼭 달성하고 싶어요"

### 전남 육상 유망주 이은빈씨

"내년에는 고등학교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전남지역 여자 육상 유망주로 꼽히는 이은빈(전남체고)이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서 3관왕에 올랐다.  
이은빈은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3개 종목

(100m 개인전, 200m 개인전, 400m 릴레이 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을 달성했다.  
이은빈은 지난 15일 여자U18 100m 개인전에서 12초 05, 16일에는 200m 24초 8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송수하·신규리·조운서(이상 전남체고)와 함께 400m 릴레이 계주에서 46초 89의 기록을 합작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은빈은 지난해 소년체전 3관왕에 이어 또다시 3



관왕을 차지하며 여자 육상 최고 유망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지만, 기록에는 만족하지 못했다.  
이은빈은 "지금 기세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올해 전국체전에서 고등학교 한국신기록 11초 73를 갱신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내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 전화문의 062)970-6000 |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대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선환경 창조! **태리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mailto:master@taeri.co.kr)